

최용준 한동대 교수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conciliation thought of Lothar Kreyssig (1898 - 1986). He was a German Christian judge in Weimar and Nazi times. He was the only judge who objected to the policy of euthanasia for the disabled, the so-called Operation T4 (Aktion T4) during Nazi times in Germany. This policy started on September 1, 1939 and stopped in 1941. About 200,000 people were killed in this operation in Germany and Austria and 100,000 people in other European countries. After World War II, he was again offered a judgeship, but declined. Later, he became an advocate of German reconciliation movement by establishing the Action for Peace Reconciliation Service and the Action for World Solidarity, a German development ai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His idea of reconciliation is very important and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article first briefly examines his life, his thought on reconciliation and concrete action. Then it evaluates what influence he left behind and concludes what kind of lessons he gives to the Korean situation.

Key Words: Lothar Kreyssig, Aktion T4, reconciliation, peace, service

I. 서론

로타 크라이식(Lothar Ernst Paul Kreyssig, 1898-1986)은 바이마르(Weimar)와 나치(Nazi) 시대 독일의 기독교 판사였다. 그는 소위 T4 작전(Aktion T4)²⁸⁾으로 불린, 나치 독일의 우생학 사상에 따라 행한 장애인 안락사 정책에 대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를 반대한 유일한 법관이었다. 2차 세계 대전 후, 그는 다시 판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그 대신 그는 독일이 침략한 국가들, 특히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위해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

28) T4 작전(Aktion T4)은 1939년 9월 1일에 시작되어 1941년에 중지되었지만, 안락사 정책 자체는 계속되었다. “T4”는 본부의 소재지인 베를린의 티어가르텐가(Tiergartenstraße) 4번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 작전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약 20만 명,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10만여 명의 장애인이 학살당했다. 1941년 8월 18일, 나치 독일은 공식적으로 이 계획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나 그 이후에도 비밀리에 계속되었다.

(ASF: 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을 설립하여 진정한 성경적 화해를 시도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으로 특별히 분단되어 남북한이 휴전 중 무력으로 대치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라이식의 화해 사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그의 생애와 사상 및 이 주제에 대한 독일어로 된 논문과 도서는 다수 있으나(Baltes, 2006, Chung, 2017, Jeromin, 2014, Gruchmann, 1984, Kahl, 2008, Kammerer, 2008, Kramer, 1989, Kramer, 1949, Legerer, 2011, Rabe, 1983, Skriver, 1962, Weiß, 1998, Willems, 1995) 국내 연구는 아쉽게도 거의 없다. 하지만 필자는 그의 화해 사상과 구체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 상황에 주는 함의도 깊다고 보므로 본 논문은 먼저 그의 생애를 간략히 살핀 후 그의 화해 사상을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가 한국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평가함으로써 결론을 맺겠다.

II. 로타 크라이식의 화해 사상에 관한 고찰

1. 로타 크라이식의 생애

로타 크라이식은 독일 제국 시대(Deutsches Kaiserreich, 1871-1918),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 1918-1933), 나치 독일(NS-Staat, 1933-1945) 및 1945년 이후 동서독 분단시대와 같은 독일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거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는 1898년에 동부 독일의 작센(Sachsen)주 플뢰하(Flöha)에서 곡물 도매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 그는 켐니츠(CheMNitz)에 있는 김나지움에서 공부했다.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1916년에 입대하여 2년간 복무하면서 프랑스, 발트해 연안, 세르비아에서 참전했다. 전쟁이 끝난 후 1919년부터 1922년까지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1923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그는 1926년에 켐니츠 지방 법원에서 일했고 2년 후 그곳에서 판사가 되었다. 그 후 1946년부터 1964년까지 그는 주로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했다.

국가 사회주의자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크라이식은 나치당인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에 투표했다. 이 당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처음에는 그도 체제에 순응하면서 국가 사회주의 인민 복지 기구(Nationalsozialistischen Volkswohlfahrt)에 가입했다. 1934년에 그는 국가 사회주의 독일 변호사 협회(BNSDJ: Bund Nationalsozialistischer Deutscher Juristen)와 독일 공무원 협회(Reichsbund der Deutschen Beamten)의 회원도 되었다(Klee, 2005: 340). 그러나 1933년에 그는 나치당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사법적 독립이 필요하다

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 대신 그는 개신교 신자로 1934년에 히틀러에 반대하여 설립된 개신교회인 고백 교회(BK: Bekennenden Kirche)에 가입했고 이때부터 그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1935년에 그는 판사로서 작센주 고백 교회의 총회장이 되었고 그해 바르멘 고백 교회 총회(Barmer Bekenntnissynode)에도 참가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의 공식 개신교회는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및 나치즘에 따라 히틀러를 추종하기 위해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던 독일 기독교인들(DC: Deutsche Christen)에 의해 지배되었고 따라서 이 고백 교회에서 그의 교회-정치적 입장은 계속해서 국가 사회주의 정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나아가 그는 자기 아들들이 김나지움에서 나치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중퇴시키고 직접 집에서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판사로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며 1937년 그는 브란덴부르크 안 데어 하벨(Brandenburg an der Havel)에서 정신 건강 법원 후견 판사(Vormundschaftsrichter)로서 수백 명의 정신 장애 아동과 성인을 책임졌다. 동시에 그는 피조계의 보전(Bewahrung der Schöpfung)에 관심을 가지고 인근의 호헨페르체사르(Hohenferchesar) 마을에서 농가(Bauernhof)를 구매하여 그곳을 ‘브루더호프(Bruderhof)’라고 부르며 유기농업(biologisch-dynamische Landwirtschaft)을 시작했다. 즉, 농부로서도 그는 생명존중, 창조의 온전함과 보전 그리고 농업생산을 조화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가 고백 교회를 세우자 당국의 조사가 반복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살 가치가 없는 사람(lebensunwertes Leben)”들을 안락사로 살인한 것(die Euthanasiemorde)을 비난한 유일한 판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그들의 인권을 변호했다(Weiß, 1998). 하지만 장애로 인한 사망 소식이 들려오자, 그들의 죽음이 안락사 살인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한 그는 1940년 7월 8일 자 편지에서 병자들이 집단 학살되고 있다는 의혹을 당시 법무부 장관 프란츠 귀르트너(Franz Gürtner, 1881-1941)에게 제기하면서 나치의 T4 안락사 정책을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강제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고한 법적 근거에 따라 반대했다(Klee, 2005: 340).

옳은 것은 국민에게 좋은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모든 법의 수호자들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 끔찍한 정책의 이름으로 가령, 강제 수용소와 요양원과 같은 공동체 생활의 모든 영역은 완전히 법에서 면제된다.

안락사 작전이 히틀러 자신에 의해 시작되었고 총통의 책임으로 수행되었다는 말을 들은 그는 제국지도자(Reichsleiter)였던 필립 불러(Philipp Bouhler)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며 자신의 환자들이 수용된 기관을 자신의 동의 없이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자 1940년 11월 13일, 그는 귀르트너 법무부 장관에 의해 소환되었고 장관은 “T4 작전”을 시작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된 히틀러의 자필 편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 편지에서 히틀러는 만 명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크라이식은 “총통의 말이 권리를 생성하지는 않는다(ein Führerwort schafft kein Recht)”라는 유명한 말로 법치주의를 대변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못함을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존재의 가장 깊은 물음을 건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직접 연결된다...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삶의 파괴’는 심각한 양심의 가책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신비이다. 그 의미는 개인의 관점에서, 국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이해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참되고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제한된 이성으로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끝내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엄청난 분개와 오만이다. 그러한 연약한 생명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충분히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이며 의미와 가치를 묻지 않는다.”

(<https://www.nordkirche.de/nachrichten/nachrichten-detail/nachricht/worte-des-gedenkens-gedenkveranstaltung-fuer-die-opfer-der-euthanasie-und-zwangssterilisierung-i>)

그러자 귀르트너는 크라이식에게 “총통의 의지를 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판사로 남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1940년 12월에 그를 강제로 휴직시켰다(Klee, 2005: 340). 하지만 그를 강제 수용소로 데려가려고 했던 게슈타포(Gestapo: Geheime Staatspolizei, 비밀국가 경찰)의 시도는 실패했으며 2년 후인 1942년 3월, 히틀러는 그를 강제로 퇴직시켰다. 그러자 그는 유기농업과 교회 사역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히 그의 유기농법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는(고후 5:19) 청지기적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1943년에 크라이식은 유대인 화가 레오 프로초브닉(Leo Prochownik, 1875-1936)의 미망인이던 게르트루드 프로초브닉(Gertrude Prochownik, 1884-1982)이 강제 수용소로 이송이 임박하자 자기 집 지하에 은신처를 만들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녀를 숨겨 주었다(www.juedische-allgemeine.de/unsere-woche/sie-waren-helden-2).

1945년에 국가 사회주의가 끝난 후 크라이식은 반대 투쟁자(Widerstandskämpfer)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전쟁 후 소련의 점령 지역에서 프로이센의 지주로 간주된 그는 재산의 일부를 잃었다. 그러자 소비에트 점령 지역의 법치가 불충분하다고 느낀 그는 판사로서의 경력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개신교회 지도자였던 오토 디벨리우스(Otto Dibelius, 1880-1967) 주교의 제안을 받아들여 1945년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작센주 개신교회의 총회장(Konsistorialpräsident)이 되었으며 1964년까지 그 직책을 맡았다. 1948년에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창립총회에 작센주 개신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교회와 사회(Kirche und Gesellschaft) 부서에서 봉사했다. 나아가 1950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포츠담(Potsdam)에서 열린 쿠어마르크 교회의 날(Kurmärkischen Kirchentag) 행사에서 월터 브라운(Walter Braun) 쿠어마르크 총감독이 인도한 개회 예배 후 그는 교회와 사회 부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 강의했다(Neue Zeit, 1950: 2). 그 후 1952년에 개최된 구프로이센 연합 개신교회 총회는 그를 1970년까지 회장으로 선출했다.

1949년에서 1961년까지 그는 독일 개신교회(EKD: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의 평의원이었고, 1949년부터 1958년까지는 독일 개신교회의 날(Deutscher Evangelischer Kirchentag)의 동부 부회장이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미하엘 형제단(Michaelsbruderschaft)이라고 하는 영적 갱신 운동에도 참여했다. 1953년부터 그는 “지속적인 풍요와 기본적인 필요가 올바른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디아코니(Ökumenische Diakonie)”와 정의로운 남북(선진국과 후진국)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그의 견해는 논쟁의 여지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일치 운동을 지지하면서 유대교인들도 포함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군사적 재무장을 반대했고 독일의 분단도 거부하면서 작센주 개신교회의 개신교 아카데미(Evangelische Akademie)와 영적 상담 전화(Telefonseelsorge)와 같은 교회 기관과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나아가 그는 1957년에 기아 퇴치를 위한 공동행동(Aktionsgemeinschaft für die Hungernden)을 설립했으며 이는 비정부기관(NGO)인 세계 연대 행동공동체(ASW: Aktionsgemeinschaft Solidarische Welt)와 세계를 위한 빵(Brot für die Welt)의 전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역시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의 설립이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화해 사역을 위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동료들과 의논했지만 대부분 그의 생각을 단순한 이상으로 보았다. 1956년에 그는 처음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1958년 4월에 이 단체의 창설을 촉구하면서 젊은 독일

인들이 2차 세계 대전의 범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자원하여 선행함으로써 과거의 나치 정권 기간 중 특히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 속죄의 표시를 보여주고 적국과 이스라엘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년들이 이에 호응하게 되었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및 그리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면서 크라이식이 더는 국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동독에서 이 조직을 설립하여 1969년까지 직접 이끌었다.

독일 개신교회 총회 상임위원회와 평화회 회원으로서 그는 동서독의 중재자였으며 교회를 말씀으로, 세상에서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영감을 주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으며 맡은 책임을 다한 독일교회의 귀한 인물이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수의 개신교인처럼 그는 초기에 교회와 사회에 에큐메니컬 관점에서 공적 책임을 요구했으며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에 대한 후기 공의회 과정의 핵심 영역은 그에게 특히 중요했다. (www.oekumene.zentrum-ekm.de/lothar-kreyssig) 1971년에 그는 서베를린으로 이사했고 1977년부터는 베르기쉬 글랏바흐(Bergisch Gladbach)의 요양원에 살다가 1986년에 소천했다. 생전에 전 세계 14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는 모두 거절했다(Honert, 2018).

2. 크라이식의 호소: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은 나치 시대 독일 개신교회의 실패와 히틀러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어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화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봉사단체로 1958년에 크라이식에 의해 창립이 추진되었다. 크라이식은 고백 교회 내에서 저항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던 마틴 니뮐러(B. Martin Niemöller, 1892-1984) 목사, 구스타브 하이너만(Gustav Heinemann, 1899-1976), 엘리사벳 슈미츠(Elisabeth Schmitz, 1893-1977) 및 프란츠 폰 함머슈타인(Franz von Hammerstein, 1921-2011)와 함께 전쟁 기간 중 교회의 실패를 언급하고 참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마침내 실패의 역사, 즉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 실행된 반유대주의를 폭로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 후 독일의 교회와 사회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고백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1945년 10월 19일에 독일 개신교회가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마르쿠스 교회(Markuskirche)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회개문(Das Stuttgarter Schuldbekentnis)에도 유대인, 집시로 불리던 신티족과 로마족에 대한 대량 학살이나 중부 및 동유럽 인구의 많은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살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돌프 프로이든베르그(Adolf

Freudenberg, 1894-1977)처럼 이를 지적한 소수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하지만 전후 독일교회와 사회는 나치 시대에서 그들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데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생존자들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거나 고문, 사랑하는 사람의 잔인한 상실, 이전 이웃의 손에 굴욕을 당하고 탈출한 후의 삶에 관심을 두기조차 꺼렸다. 미하엘 보데만(Michael Bodemann)이 그의 책 *Gedächtnistheater: Die jüdische Gemeinschaft und ihre deutsche Erfindung*(기념극장: 유대인 공동체 및 그들의 독일 이해)에서 설명한 생존자의 꿈은 생존자의 갈망, 정확히는 용서에 대한 요청 등에 대해 알려준다(Bodemann, 2001).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공감의 기색은 없었다.

크라이스는 1954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교회의 날 행사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으나 그의 호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1958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개신교회 총회가 서베를린-스판다우(Berlin-Spandau)와 동베를린-바이센제(Weissensee)에서 교대로 열렸다. 당시에 이미 동서독 분할이 완료되었지만, 독일 개신교회 총회는 여전히 독일 개신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였으며, 그 자리에서 서독 개신교회와 동독 개신교회 총회가 함께 토론했다. 이 총회의 마지막 날, 크라이스 총회장은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운동 창설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전후에 태어난 독일 청년들이 이전에 독일이 침략했던 곳으로 가서 사죄와 평화를 구하면서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화해의 상징이 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주제 성구는 고린도후서 5장 19-21절이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

그의 호소문에서 그는 먼저 독일인들이 제2차 세계 대전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반역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몰살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살아남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Weiß, 1998: 455)

나아가 그는 화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아직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이 1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라도 양심적으로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성과 관계없이 정말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러한 신념을 실천할 때 여전히 자기 정당화, 비통합, 증오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Weiß, 1998: 455)

그 후 그는 다음과 같이 과감하게 제안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폭력을 당한 민족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땅에서 우리의 손과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을, 정착촌, 교회, 병원 등 화해의 표시로 원하는 무엇이든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준 폴란드, 러시아, 이스라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는 모든 신앙과 사회적 지위를 지닌 독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폴란드, 러시아, 이스라엘로 가서 평화의 표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이스, 1998: 455-456)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재정 계획도 제안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화해 행위에 대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제를 조달할 수 있고,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비용이 조달됩니다. 총회 승인 후 계좌번호는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공개됩니다. 모든 참가자는 여행비와 생활비에 필요한 보상을 받습니다. (바이스, 1998: 455-456)

나아가 그는 이 봉사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인들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련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마무리했다.

우리는 폴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정부에 이 봉사를 큰 도움이나 보상이 아니라 용서와 평화를 위한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이 봉사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독일 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이 조치를 허용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Weiß, 1998: 455-456)

그러자 적지 않은 회원들이 이 호소문에 지지 서명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큰 증오를 나타내면서 그의 제안을 유토피아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크라이식은 함께 죄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했다. 그의 견비한 태도는 속죄의 개념을 온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는 참여하고 행동하며 대화를 통해 배우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행동과 진실을 추구했는데 이는 당시 많은 사람에게 너무 타인 지향적 자세로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제안에서 새로운 정치적 폭발력과 영적 통찰력을 감지했고 한때 파괴된 것을 수집, 회복, 유지하는 데 전념했다. 크라이식은 이 단체를 범독일 조직으로 설립하고자 했으나 독일의 분단으로 공동 작업은 불가능했다. 동서독에서 두 조직은 공동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갔지만, 실제 사역에서는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956년에 그가 이 처음 제안을 했을 때는 지지자들이 별로 없어 낙심할 수도 있었으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1958년에 다시 제안하여 적지 않은 동조자들을 얻었고 마침내 1959년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제안은 얼핏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전후 세대에 게 호소하였고 그들이 자원하면서 이 사역은 시작될 수 있었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3.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 사역

1) 서독

서독의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 사역은 1959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노르웨이에서 사회적 아카데미(Sozialakademie)와 교회 및 장애인 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었으며 이를 위해 크라이식은 여러 개인과 단체에 후원을 요청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예산을 채울 수 있었다(Weiß, 1998: 355). 다른 프로젝트는 곧 다른 국가에서도 시작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왔다. 프랑스의 빌뢰르반느(Villeurbanne)에 유대인 회당 건설, 프랑스 떼제(Taizé) 공동체에 화해 교회(Église de la Réconciliation) 건축,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스키페(Skopje)에 유치원 건립, 그리스의 크레테(Crete)에는 관개 시스템 설치, 2차 대전 중에 파괴된 영국의 코번트리(Coventry) 대성당에 국제적인 만남의 장소(internationalen Begegnungsstätte)의 재건 등이었다. 그 후 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은 1961년 키부츠 프로젝트로, 아돌프 아이히만(Otto Adolf Eichmann, 1906-1962)²⁹⁾에 대한 재판이 끝난 후 시작되었다(asf-ev.de/ueber-uns/leitsaetze-und-geschichte).

29) 아이히만은 독일인이자 오스트리아인으로, 나치 독일의 상급돌격대 지도자로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즉 홀로코스트 실행을 위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동유럽의 강제노동수용소로 추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1960년 5월 11일 아르헨티나에서 모사드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쟁 범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아 1962년 6월에 교수형에 처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지역은 서서히 변해갔다. 건설 프로젝트는 점점 줄어들었고 기타 기념관, 노인 및 사회사업 프로젝트로 대체되었다. 1980년대에는 구조적 차별, 인권 및 이웃 지원 분야에서 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실이 설립되었다. 1985년 9월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제21차 독일 개신교회 총회에서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은 군사적 억제 가능성에 반대하는 뒤셀도르프 평화 논제 5개를 발표했다.

2) 동독

이와 반면에 동독의 화해를 위한 행동(ASZ: Aktion Sühnezeichen)은 동서독 간의 장벽 건설로 1961년 이후 더는 서유럽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를 보낼 수 없었다. 따라서 화해를 위한 행동 프로젝트는 처음에 동독의 영토와 교회 내부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1962년에 이 사역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2-3주 동안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여름 캠프를 설립하여 발전시키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초라하고 고단한 시작이 미래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고 동독의 화해 작업을 위한 구조와 개념은 이러한 기반 위에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1965년과 1966년에 자원봉사자 그룹은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가톨릭 사목 사무소와도 협력하여 나치 강제노동수용소가 있던 아우슈비츠, 마이다네크(Majdanek), 슈투트호프(Stutthof) 및 그로스-로젠(Groß-Rosen) 등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 1967년과 1968년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추모 유적지에 대한 추가 여행은 초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자 거부로 실패했다. 1969년에 크라이식은 대표직을 내려놓았고 그 후, 1972년에 동독, 폴란드 및 소련 간에 비자 면제 협정이 도입된 후에야 동독 청소년들이 폴란드의 여름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1979년에 한 그룹이 처음으로 나치 강제노동수용소가 있던 부헌발트(Buchenwald)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여름 캠프 일부가 교회 밖에서 이루어졌으며 1981년부터는 이 여름 캠프 수가 확장되었다. 가령 부헌발트 외에 다른 나치 강제노동수용소가 있던 작센하우젠(Sachsenhausen), 라벤스브뤽(Ravensbrück) 및 미틀bau-도라(Mittelbau- Dora) 등지이다. 이때부터 본 단체는 동독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 묘지의 유지 및 복원에 참여했다.

3) 통일 이후

독일 통일 이후에 두 조직은 통합되었다. 서독의 장기 자원봉사와 동독의 단기 자원 봉사 및 여름 캠프의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자원봉사는 유지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봉사단은 변화하는 수요와 유럽 자원봉사와 같은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늘려왔으며 유럽, 이스라엘, 미국에서 자원봉사 및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

사회주의의 범죄와 그 결과를 다루기 위해 현재까지 구체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단체의 자원봉사자는 나치 강제 수용소 생존자를 지원하며 정신 질환자, 노숙자, 난민 또는 장애인을 돕는다. 또한, 이 봉사단은 수백만 명에 대한 살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냉혈 살인자가 되었는지, 왜 소수의 사람만이 유대인의 말살을 막았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나치의 역사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젊은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격려하며 이것은 종종 화해, 수용 및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본 단체는 국경을 초월한 만남을 통해 화해를 위한 행동을 취한다. 그리고 본 봉사단은 기억이 현재를 형성한다고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적 기억과 그들이 가졌던 영향을 인식하고 토론을 통한 상호이해를 장려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이 봉사단은 화해를 개인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역사적 죄책감도 포함한다고 본다. 이것은 나치 치하에서 고통받던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분명해진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가 이 화해 운동의 자원봉사자를 만나는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인과의 첫 만남이다. 과거의 상처로 인한 고통은 화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화해의 과정은 역사적 죄의 인식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해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속죄 개념도 포함된다. 즉, 속죄는 파괴된 삶을 치유하는 것이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과 불의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보상받을 수 없으나 속죄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봉사단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화해란 전쟁이 없는 평화 그 이상이며 개인이 타인과 자신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울 때 가능해진다.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세계는 아직 많은 갈등이 있으나 이 갈등을 평화롭게 처리하는 방법은 다른 의견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모순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며 인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평화봉사단은 가치, 의견, 특성, 세계관 및 생활방식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자들은 지속하여 이를 학습하면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www.asf-ev.de/ueber-uns/organisation/verein/kuratorium/ziele-und-leitsaetze/ziele)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의 현재 업무는 먼저 장기 자원봉사로 현재 벨라루스,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영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및 미국과 같은 나치 통치로 특히 심하게 고통받는 국가에 매년 약 180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와 그 후손을 지원 및 동반하고, 추모 장소에서 일하며,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와 난민을 돌보고, 지구 프로젝트 및 반인종차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1980년대 협력단체가 독일에 자원봉사를 독려한 이후 1996년부터 미국, 이스라엘, 유럽 여러 나라에서 15-20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위해 독일에 왔으며 매년 약 300명이 독일 및 해외에서 약 25개의 여름 캠프에 참여하여 함께 거주하고 일한다. 이들은 종종 평화봉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전 장기 자원봉사자이다. 2-3주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가령 유대인 묘지와 기념관, 사회 기관에서 일하고 문화 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또한, 현재 및 역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젊고 오래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후에도 지역 그룹 및 친구 모임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다른 자원봉사자는 장단기 자원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며 그중 일부는 홍보 및 교육 업무에도 이바지한다.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프로젝트 파트너의 최신 작업을 보고하고 특정 주제에 전념하는 정기 잡지 “*zeichen*”을 일 년에 세 번 발행한다 (asf-ev.de/veroeffentlichungen/?filter=zeichen). 또한, 현재의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가령, 반유대주의, 우익 극단주의,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종교 간 및 문화 간 대화,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초점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연례 주제를 결정하는 것인데 2022년과 2023년의 격년제 주제는 “반셈족주의,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Antisemitismus, Antijudaismus, Antiisraelismus)”이었다.

교육 사역으로 이 봉사단은 기억 정치와 종교 간 대화를 주제로 한 이벤트, 워크숍, 세미나 및 회의를 통해 사회적 토론을 자극하고자 노력하며 나아가 후원자 또는 협력 파트너로서 다음과 같은 회의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즉, 국제 청소년 회의 센터(IJBS: Internationale Jugendbegegnungsstätte), 예루살렘에 있는 평화의 집인 베이트 벤 예후다(Beit Ben Yehuda) 그리고 파리 국제회의장 포와이에 르 뵁(Foyer Le Pont)이다.

4. 그의 유산

오늘날까지 크라이식은 나치의 T4 프로그램에 따라 자행된 조직적 살인을 저지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플리하, 브란덴부르크 안 데어 하벨, 마그데부르크, 칼스루어(Karlsruhe) 및 베르기쉬 글랏바흐에는 각각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다. 플리하에는 그의 이름을 딴 학교도 있으며 레닌(Lehmin)에는 그의 이름을 딴 요양원도 있다. 나아가 동서독 통일의 도화선이 된 1989년 평화혁명에 참여하여 정치 활동을

시작한 많은 사람도 사실 그의 화해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바이스는 지적한다(Weiss, 1998).

그의 100세 생일을 기념하여 1998년, 브란덴부르크 안 데어 하벨(Brandenburg an der Havel)에 있는 상급 지방 법원(Oberlandesgericht)에는 기념 명판이 공개되었다. 지금 브란덴부르크의 일반 변호사회(Generalstaatsanwaltschaft)가 있는 이전 하급 법원 대지에는 2개의 기념비가 있고 그 내부에는 크라이식을 ‘화해의 선지자(Prophet der Versöhnung)’라고 부르며 그의 전기를 출판한 콘라드 바이스(Konrad Weiß)의 비문이 새겨진 명판도 있다. 브란덴부르크 법률가협회는 2008년 5월 50일에 그가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을 창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명판을 기증했다. 2006년 10월 22일 연방 법무부는 그의 사망 20주년을 기념하여 브리기트 지프리스(Britte Zypries) 법무부 장관이 후원하는 추모식을 개최했다. 2008년 7월 5일에는, 1937년부터 1972년까지 그가 거주했던 호헨페르체사르(Hohenferchesar)에서 기념비가 공개되었다.

로타 및 요한나 크라이식(Lothar & Johanna Kreyssig)은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고 홀로코스트 기간에 아무런 금전적, 종교적 목적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구해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1953년 설립한 이스라엘의 공식 추모 기념관인 야드 바셈(Yad Vashem)에 의해 의인으로 인정되었다.

2009년에 한스-요아힘 되링(Hans-Joachim Döring)은 마그데부르크에 중부 독일 개신교회(EKM: Evangelischen Kirche in Mitteldeutschland)의 로타 크라이식 에큐메니컬 센터(LKÖZ: Lothar Kreyssig Ökumenezentrum)를 설립했다(Döring, 2011). 이 단체는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령, 지역 교회, 교구와 총회를 위한 서비스 및 자문을 제공하며 현대 사회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부 독일 개신교회의 지역 교회, 기관 및 사역과 함께, 정치 및 사회 영역과 협력하고 에큐메니컬 파트너와도 대화를 촉진한다. 이 센터의 핵심 주제는 평화, 정의, 이주, 에큐메니컬 동반관계, 환경 및 발전이다(www.oekumene-zentrum-ekm.de). 나아가 이곳에서는 로타 크라이식 평화상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2년마다 수여하고 있다.

2018년 5월 27일, 베를린의 프랑스 프리드리히슈타트 교회(Französischen Friedrichstadt kirche)에서 본 봉사단의 6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여기서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은 이렇게 축사의 결론을 맺었다.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길고 때로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강요된 재교육이나 굴욕이 아니라, 느리지만 지속적인 자기인식과 궁극적인 자기 해방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인에게는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나는 몇 가지 새로운 역사적 수정주의적 책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집단학살의 죄를 다시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계몽과 정치적 책임이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 독일을 유럽 국가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이 오늘날의 국가, 즉 유럽에서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이웃 국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기인식에 따라 로타 크라이식과 그의 부름과 모범을 따랐던 많은 화해봉사단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bulletin/rede-von-bundespraesident-dr-frank-walter-steinmeier-1147280)

III. 결론

지금까지 로타 크라이식의 화해 사상과 그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그가 행한 구체적인 노력인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에 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장애나 질병 여부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T4 프로젝트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한, 진정한 용기를 가진 기독교 판사였다.

둘째로 그는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침략했던 국가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화해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실천한 본보기가 된다. 그는 비록 나치를 반대하는 고백 교회 소속이었지만 독일 개신교회 총회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시 독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며 그것을 호소함으로써 많은 전후 독일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어내었고 실제로 이들은 화해의 상징이 되어 많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평화의 봉사를 실천했다. 처음에 그의 호소는 비현실적인 이상으로만 들렸으나 결국 이러한 화해 운동은 지속해서 전개되었고 로마 가톨릭교회와도 협력하였으며 지금도 수많은 독일 청년들이 헌신하여 봉사하고 있고 그 결과 독일은 주변국들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는 동시에 마침내 재통일되는 축복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크라이식의 신앙은 분명히 행함이 있는, 살아 있는 믿음이었으며 따라서 본회퍼(D. Bonhoeffer)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화해의 사도’로 매우 중요한 기독교 사상가요 실천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한반도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한국동란 후 70여 년간 분단되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남북한에도 이처럼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 운동이 일어나고 장애인들이 더욱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화해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고 북한에서도 호응한다면 남북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되며 마침내 한반도도 통일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들은 크라이식의 화해 사상을 더 깊이 연구

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Baltes, C. (2006). *Der Umgang mit dem Sühnebegriff in der frühen Bundesrepublik am Beispiel der Reaktion der Evangelischen Kirche auf die Aktion Sühnezeichen (1958 - 1964)*,
Norderstedt: Grin Verlag.
- Bodemann, M. (2001). *Gedächtnistheater: Die jüdische Gemeinschaft und ihre deutsche Erfindung*,
Berlin: Bebug.
- Chung, C.M. (2017). *Repentance for the Holocaust. Lessons from Jewish Thought for Confronting the German Pas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Döring, H. J. (2011). *Lothar Kreyssig. Aufsätze, Autobiografie und Dokumente*.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Gruchmann, L. (1984). “Ein unbequemer Amtsrichter im Dritten Reich - Aus den Personalakten des Dr. Lothar Kreyßig” in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Heft 3; ifz-muenchen.de
- Honert, M. (2018). “60 Jahre Aktion Sühnezeichen: Der Wiedergeborene: Lothar Kreyssigs erstaunliche Wandlung” *Tagesspiegel*. www.tagesspiegel.de/gesellschaft/der-wiedergeborene-lothar-kreyssigs-erstaunliche-wandlung-3917227.html
- Jeromin, U. (2014). *Sommerlager-Geschichten. Erinnerungen mehrerer Generationen an die erlebnisreiche Zeit mit Aktion Sühnezeichen*. Leipzig: sensus-Verlag.
- Kahl, W. (2008). “Lothar Kreyssig-Amtsrichter im Widerstand und Prophet der Versöhnung”
in *Deutsche Richterzeitung*, 299-302.
- Kammerer, G. (2008). *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 Aber man kann es einfach tun*,
Göttingen: Lamuv Verlag.
- Klee, E. (2005). *Das Personenlexikon zum Dritten Reich. Wer war was vor und nach*

1945. 2.

aktualisierte Auflage.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Kramer, H. (1989). "Lothar Kreyssig (1898 bis 1986), Richter und Christ im Widerstand", in

Redaktion Kritische Justiz (Hrsg.): *Streitbare Juristen*. Baden-Baden: Nomos.

Kramer, M. (1949). "Kreyssig, Lothar Ernst Paul" in Guido Heinrich, Gunter Schandera (Hrsg.),

Magdeburger Biographisches Lexikon 19. und 20. Jahrhundert. Biographisches Lexikon

für die Landeshauptstadt.

Kreyssig, L. (1949). *Gerechtigkeit für David. Gottes Gericht und Gnade über dem Ahnen Jesu*

Christi. Nach dem 2. Buch Samuelis.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gerer, A. (2011). *Tatort: Versöhnung. Aktion Sühnezeichen in der BRD und in der DDR und*

Gedenkdienst in Österreich.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Magdeburg und die Landkreise Bördekreis, Jerichower Land, Ohrekreis und Schönebeck. Scriptorium,

Magdeburg 2002.

Neue Zeit, 3. Juni 1950, S. 2 "Der Christ und die Verantwortung. Der traditionelle Kurmärkische

Kirchentag in Potsdam."

Rabe, K. K. (1983). *Umkehr in die Zukunft. Die Arbeit der 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 Bornheim-Merten: Lamuv-Verlag.

Reimann, A. (2006). NS-Verbrecher und Stasi: "Wer Nazi war, bestimmen wir!" In: *Spiegel*

Online. 26. Januar 2006.

Skriver, A. (1962). *Aktion Sühnezeichen. Brücken über Blut und Asche*. Stuttgart: Kreuz-Verlag.

Weiß, K. (1998). *Lothar Kreyssig, Prophet der Versöhnung*. Gerlingen: Bleicher,

Willems, S. (1995). *Lothar Kreyssig: Vom eigenen verantwortlichen*. Berlin: 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

www.juedische-allgemeine.de/unsere-woche/sie-waren-helden-2

www.asf-ev.de/ueber-uns/organisation/verein/kuratorium/ziele-und-leitsaetze/ziele

www.oekumenezentrum-ekm.de

www.nordkirche.de/nachrichten/nachrichten-detail/nachricht/worte-des-gedenkens-gedenkveranstaltung-fuer-die-opfer-der-euthanasie-und-zwangsssterilisierung-i

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bulletin/rede-von-bundespraesident-dr-frank-walter-steinmeier-1147280